

목양칼럼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책상에 금을 그어 놓고

평소 내 짝꿍이라고 부르던 친구가 팔꿈치 끝이라도 넘어오면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왜 호들갑을 떨었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우리 집도 가난하면서

맛있는 짬뽕 장사 집의 아들인 친구에게

왜 무안을 주었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아무런 감정도 없던 친구였는데

다른 옆 친구들의 응원(?) 속에

“너, 나하고 뜰래(싸울래)” 하고

왜 세지도 않은 주먹을 내밀었을까?

이 가을에 이름도 얼굴도 가물가물한 옛 친구들 생각이 나는데

같이 있었던 그때 왜 잘 대해 주지 못했는지

혼자 부끄러워하며 노래 불러 봅니다.

해는 저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358-7789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O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진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명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이양미/3교구 (516)717-8720
소유영/행정 (917)318-703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교육전도사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배인구/청년부 (917)736-3429
정진규/관리 (646)651-7255	최진식/ (646)887-7419
이명옥/영아부 (646)327-6438	손요한/총회교육부 (646)789-1118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홍현숙/서무 (201)759-0820
장다/중국어부 (929)204-6868	Shen de Guia/OPEM
직원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찬양대 1부 예배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예배 / 호산나 찬양대
지휘 / 소유영	3부 예배 / 시온 찬양대
반주 / 최미희 이승은	지휘 / 최진식
	반주 / 송소영
	반주 / 윤현주
	4부 예배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경희
	반주 / 김정윤 임세현



주후 2017년 10월 22일
제 43-43호

주일예배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오인수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35	1,3부 / 다같이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2,4부 /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홍승룡 장로
		2부 / 김용생 장로
		3부 / 이근우 장로
		4부 / 전성호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출애굽기 10:1-29	사회자
찬양 CHORUS	주는 여호와	임마누엘 찬양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호산나 찬양대
	외치리라! 구원의 소식	시온 찬양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이것을 전하라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1부/ 소철화 2부/ 김유경 3부/ 김만규 4부/ 박종범, 박미연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620 / 2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섬		

주일 저녁 예배

오후 4:00 (10/22/17)	사회: 김성국 목사
예배선언	사회자
찬송 95	다같이
기도	송창호 집사
성경봉독	사회자
빌립보서 1:3-11	
찬양	찬양대
말씀	김만규 목사
그리스도의 십장으로	
찬송 461	다같이
광고	사회자
찬송 455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QPEM English Service

12:00pm	Rev. Peter D. Kim
Praise	Congregation
Scripture	Presider
Mark 12:28-34	
Prayer	Dn. Jenny Whang
Sermon	Peter D. Kim
"A Gospel Shaped Worship"	

Богослужени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8:30am	Пастор В.Сон
Хвала	Все вместе
Слово из Библии	сестра Т. Лян
от Матфея(Mt.) 18:21-35	
Молитва	брат Т. Рахметов
Проповедь	пастор В. Сон
"И прости нам долги наши..."	

수요 기도 예배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오후 8:00 (10/25/17)	사회: 김재형 목사
예배선언	사회자
찬양	주빌리 앙상블
합주	전능왕 오셔서, 면류관 벗어서, 더욱 사랑
간증	김해련 청년
독주	살아계신 주 홍승룡 장로
합주	주와 같이 갈가는 것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성경봉독	사회자
시편 73:25-28	
말씀	김재형 목사
주님만 바랍니다	
찬송 271	다같이
광고	사회자
결단기도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中文堂崇拜

早上 9:30/下午 4:00	司会:陈玉捷传道
赞美	会众
经文	司会
太(Mt.) 23:13-15	
证道	常达传道
谁有祸了? (I)	

새가족 환영회

3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주빌리 앙상블 찬양

10/25(수) 축복이 흐르는 예배

장로 임직 감사 예배

10/29(주) 오후 5:00 본당

교회소식

10월 말씀의 달 -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10/25(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10/29(주) 장로 임직 감사 예배
11/1(수) 지도원 성경 공부	11/5(주) 써머타임 해제, 장년 성경 공부 주기도문(VII), 선교회 월례회
11/10(금) 구역예배	11/15(수) 신학교 찬양의 밤 11/19(주) 성례 예배

알림

- 저녁 예배 설교는 김만규(김토마스 CCM Church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 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 교육 장소 안내
2부 예배 후(오전 11:45) 210호(학습), 213호(세례)
4부 예배 후(오후 3:15) 303호(학습), 305호(세례) 중 택일
- 장로 임직 감사 예배가 10/29(주)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한 리허설이 10/28(토) 오후 7:30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부서장께서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We are that Dream 장학생 선발 안내 교회가 다음 세대를 함께 키워가는 공동체로서 음악 및 무용 분야에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발굴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1) 대상: 초등부-청년선교부 2) 신청자격: 등록 후 6개월 이상의 출석 교인 3) 신청기간: 10/25까지
4) 예선: 10/28(토) 5) 본선: 11/4(토) 6) 신청 및 문의: 교회 웹사이트 7) 연락처: 채현주 권사, 박정봉 집사
- 2017년 교육 컨퍼런스 안내 1) 일시 11/11(토) 오전 8:30 2) 강사: 정주성 목사
- 10/28(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할렐루야 찬양대 (다음주: 임마누엘 찬양대)
- 가족기념 장학기금 김수산 장로, 김연희 권사

새가족

퀸에스터 (브리스가 4WH1, 정노아 - 고등부, 정수아 - 초등) 박제인 (마르다 1F10)
김순자 (브리스가 2F11) 황철석 (베드로 2F12, 황정아 - 중등) 김길련 (여호수아 2F3)
손영옥 (한나 2F3) 유일순 (루디아 2F3)

교우소식

개업 허영애 교우(2F11)께서 '헤어 코코' 미용실을 개업하였습니다.

주소: 149-12 41 Ave, Flushing (718)644-6449

금식기도자

주 / 조나영 이길자 정주영 이혜정 박지연
월 / 조나영 채현주 이양미 흥한나 송정향 박지연 화 / 남정현 채현주 정민영 흥한나 송정향 최치훈
수 / 조나영 손정호 이혜연 정민영 송정향 채영주 박지연 목 / 조나영 손정호 정주영 송정향 최재영 최치훈
금 / 조나영 손정호 정기영 최지혜 박지연 토 / 차동미 유정애 정기영 이양미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오후	오후 04:00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4:0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6:3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출석

1부 예배	293	러시아어 예배	21	영어부	31	중등부	64
2부 예배	319	청년 선교부	87	유아부	31	고등부	60
3부 예배	329	주일 저녁 예배	252	유치부	29	청년 대학부	41
4부 예배	189	새벽 예배	1978	중국어 교육부	18	교회 학교 예배	457
영어 예배	165	수요 기도 예배	247	유년부	96	주일 낮 장년 예배	1671
중국어 예배	268	새가족 환영회	-	초등부	87	주일 낮 총계	2128

10월 봉사의원

책임 장로: 김용생 장로

헌신기도	김원도 장로	임 정 장로	정성호 장로	이무근 장로
책임권사	남궁혜령 권사	김미건 권사	장광숙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이정숙 오영자 홍지혁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김희은 오성태 송현규 김선희 장지숙 정민영	김서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애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김지한	윤지현	박철홍

화요일 새가족 환영: 마르다, 베드로 주일식사: 마르다 (다음주: 다비다)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김현(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은순(탄자니아)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 (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지승남(미국 캠퍼스) / 최동훈(케냐)

이번 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문답 12)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월 - 사도신경 / 찬송가 94장 / 소요리 문답 / 전도서 2장 1-11절

나의 마음을 무엇으로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내게 만족을 줄까요?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자는 여러 가지를 연구해보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웃음을 연구하고 희락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2).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려 해보기도 하고, 지식과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착한 일도 해보았습니다(3). 크게 사업을 벌이고 포도원과 숲을 일구기도 하고, 남녀 종들을 부리기도 하고, 소와 양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기도 했습니다(4-7). 금은보화를 쌓아두고 음주가무를 즐기고 (8)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로다” (11) 왜 그런가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는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가정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 사도신경 / 찬송가 304장 / 소요리 문답 / 전도서 2장 12-17절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중 누가 되고 싶습니까? 누구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꿈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잘못된 실수의 대가로 고스란히 고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일지라도 고생과 수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15). 아무리 지혜롭다고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롭다고 어리석은 자보다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죽습니다(16).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나은 것은 그저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과 같이, 어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12). 그래서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17). 그래서 수고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항상 빛에 거하는 우리 가정 되길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수 - 사도신경 / 찬송가 435장 / 소요리 문답 / 전도서 2장 18-26절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수고가 얼마나 숭고합니까? 마음에 애쓰며 쉬지 않고 열정을 쏟는 그 자체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에 대한 결과를 얼마나 우리가 누리는가를 생각하면 꼭 수고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기대 이상으로 결과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막상 그 수고의 대가는 다른 사람이 챙긴다고 말합니다(21). ‘재주는 꿈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 라는 말도 있지요. 그래서 사람이 수고한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좋고 선한 일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24).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는 이 수고의 기쁨도 결국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26). 기쁨이 순간이고 계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 사도신경 / 찬송가 338장 / 소요리 문답 / 전도서 3장 1-11절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나라, 교회, 가정에도, 모두 각 때에 맞는 일이 일어납니다. 길가의 나무 하나를 봐도 씨가 심길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다 자라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웃을 때, 울 때, 춤출 때, 슬퍼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보면 죽을 갈아 보이는 잠을 자야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듯이, 움츠리는 겨울이 있어야 싱그러운 여름, 열매 맺는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때와 시간, 인생의 계절을 누가 정하고 인도할까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여러 때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11). 우리 가정이 어떤 때를 맞이하든지 영원하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 사도신경 / 찬송가 545장 / 소요리 문답 / 전도서 3장 12-15절

인생의 모든 수고도 ‘인생의 때’ 라는 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강물이 아무리 거세도 바다를 채울 수도 이길 수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아도 건강을 잃거나 나라를 잃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각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늘 기뻐하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그 열매를 먹고 마시며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12). 우리 가정이 현재 만난 일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때를 따라 겪는 그 일에서 분명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Present)가 선물(Present)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 사도신경 / 찬송가 314장 / 소요리 문답 / 전도서 3장 16-22절

살아가면서 시험이 옵니다. 시련도 오고 유혹도 만납니다. 물론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욕심에 따라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18). 이 말씀은 인간이 존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나 짐승이나 모두 죄의 결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로 수고와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곳에서 배고파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에 사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결국 한 가지를 향합니다.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19)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11) 영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